

10·30 재보선... 김빠진 '초미니 선거' 되나

'블랙홀' 채동욱

포항 남·울릉, 화성갑 2곳서만 치러질 가능성

월말까지 최종결정... 나주·화순 등 재판 내일 윤곽

한때 10~15개 선거구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던 10·30 재·보궐선거가 경북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갑 등 2곳을 포함해 '초미니'로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의 공천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현재 경북 포항 남·울릉과 경기 화성갑은 이미 재·보선이 확정됐다. 이외에 ▲인천 서구·강화도 ▲인천 계양 ▲경기 수원 ▲경기 평택 ▲충남 서산·태안 ▲전북 전주 완산을 ▲나주·화순 ▲경북 구미갑

▲서울 서대문을 등도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이 나와 재·보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재보선 지역으로 확정되려면 선거일 한 달 전인 오는 30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3심 절차에 들어간 이들 재·보선 대상 지역에 대한 대법원 선고기일은 이날 현재까지 잡히지 않았다.

대법원 선고기일은 대개 둘째와 넷째 주 목요일이어서 추석 연휴를 감안할 때 사실상 앞으로 한 주 정도의 시한이 남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오는 26~27일께 선고를 하려면 재판 당사자에게 17일 정도까지는 통보를 해야 한다"면서 "17일 정도면 이달 내 대법원 선고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여권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재·보선 지역은 경북 포항 남·울릉, 경기 화성갑 2곳으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예상과 달리 규모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소 감이 빠진 것은 사실이나 대상지가 줄어들자 후보로 거론되던 거물급의 격렬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거 지역이 여당에 강한 지역이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출마설도 제기된다.

정, 즉 예선이 더욱 시선을 끌 것이라 예기도 나온다.

먼저, 화성갑에는 18대 국회 때 이 지역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희 전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표발 선전에 나선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천안 출신이어서 충청 지역이나 충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에 출마를 저울질하지 않겠느냐고 짐작했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선거에 나선 가능성이 거론돼 주목된다. 이날 서 전 대표의 평전인 '우정은 변치 않을 때 아름답다'가 출간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 분당에서 지난 보선을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의 출마설도 제기된다.

야권에서는 민주당 손학규 상임고문이 대항마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대권 후보로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점은 물론 경기 지역에서 4선을 하고, 경기도지사까지 지낸 게 감점이지만 정작 본인은 불출마 의사가 강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텃밭인 포항 남·울릉군은 공천이 곧 당선으로 여겨지면서 당내 예선이 더욱 치열한 경유다. 이 새누리당 예비후보 등록한 인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박명재 전 행안부 장관, 서장은 전 서 울시 정무부시장, 이준식 전 국회의원 등은 중앙무대에서 뛰던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로서 공천을 받기 위한 불꽃집전이 예상된다.

사퇴 불구 3자회담 등 모든 정치권 이슈 빨아들여

일선검찰 반발 '檢亂' 조짐... 靑은 사표수리 '미적'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은 이날 오후 1시20분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1시간여만인 오후 2시30분께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서울서 부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 부급 검사들의 사의표명과 황의가 이어지면서 일선 검찰의 반발 기류가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채 총장은 13일 구분선 대검 대법원을 통해 "저는 오늘 검찰총장으로서의 무게를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주어진 임기를 채우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채 총장은 "지난 5개월 검찰총장으로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한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자신의 사의 표명으로써 이어진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채 총장은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일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이 원하는 검찰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소중한 직분을 수행해 달라"고 검찰 조직에 당부했다.

채 총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한 지 1시간 30분만인 오후 4시4분께 검찰 간부 30~40명의 인사를 받으며 대검찰청 청사를 떠났다.

이와 관련 김윤성(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검찰1과장은 14일 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검찰 압박을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과장에 이어 박은재(46·24기) 대검 미래기획단장도 이날 날선 목소리로 법무부 결정을 비판했다.

김 과장은 이날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한 장관과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지 1주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오후 황교안 법무장관이 자신에 대한 검찰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1시간여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연합뉴스

사꾼들에게 내 행정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며 법무부의 검찰 결정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법무부가 대검 검찰본부를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채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 아들 딸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물러난다"고 덧붙였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진실이 규명되면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라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을 빨리하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안, 광주·전남 실행위원 50명 오늘 발표

정책네트워크 '내일' 풀뿌리 조직 '재보선 불참...내년 지방선거 집중'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오는 10월30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빠르면 16일 광주·전남지역 실행위원 50여명

의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이 2~3곳 정도라면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전력을 다해 선거 운동에 도움이 되고자 뛰어야 하는데 재·보선 지역이 2곳 정도에 그쳐 정치적 의미가 축소된 상황이라면 그 정도를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지역에서 재·보선이 치러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상황이 이렇게 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번 10월 재보선 지역구는 최소 2곳에서 많아야 4곳이 될 것이라 전망이 유력해 안 의원은 사실상 이날 10월 재보선 불참을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안 의원 측은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풀뿌리 조직을 담당할 광주·전남지역 실행위원 50여명의 명단을 빠르면 16일 발표하는 등 추석 전 지역조직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10월 재보선 참여와 상관없이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다.

안 의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안 의원 정부보좌 역할을 하는 기획위원과 교수 및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정책위원, 실행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실행위원은 안철수 신당이 창당했을 때 지역별 조직을 맡는 풀뿌리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 중 상당수의 인사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안 의원은 10.30 재·보선과 관련해 "재·보선을 치르는 지역이 2~3곳 정도라면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크다. 이날 현재 안 의원 측은 광주·전남 지역 실행위원 명단과 발표일시를 놓고 막바지 고심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 의원 측은 나기백·서삼석·서종진·신현구·윤재갑·이광중·임택·주철현 등 광주와 전남지역 기초자치

빛의만평

- 김중두



어디서 날아온 流彈인지 알것같다

www.HanaTour.com

상담 및 예약: 하나투어 전문 판매점

윤기주하나투어 (신세계 이마트 1층)	062)360-0166
세정투어여행사 (상무지구 세정아울렛 3층)	062)464-8000
모든나라여행사 (전남대정문)	062)521-2100
남해여행사 (목포 한시랑방원)	061)287-4100

하나투어 창립기념일 맞이 [무안출발] 특가 상품 ★20석 한정★

[CBPF01-OZG] 북경(베이징) 4일	399,000원 ~
[CCPF01-MUB] 상해/주거가/소주/항주 5일	449,000원 ~

London Stock Exchange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여행의 계절 가을, 하나투어에서 추천하는 가을테마여행으로 떠나보세요!

장가계 직항 전세기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걸작

무안출발 10월 8일(화)~11월 12일(화) 총 11회

매주 화요일(3박4일)/금요일(4박5일)

[CJPF01-FM] 장가계/원가계 4일	849,000원 ~
[CJPF01-FM1] 장가계/원가계 4일	999,000원 ~
[CJPF01-FM1] 장가계/원가계 5일	949,000원 ~
[CJPF01-FM1] 장가계/원가계 5일	1,049,000원 ~

JDX와 함께하는 제27차 글로벌 골프챌린지투어

하나골프

캄보디아 씨엠립 5일 부영 C.C

[AVG1611311280Z1/KE1] 11월 28일(목) 1,399,000원 ~

[AVG1611311280Z2/KE2] 11월 30일(토) 1,249,000원 ~

중요여행

호주/뉴질랜드 남북식 10일

4,500,000원 ~

인출발

호수평파라다이스 [JKP744-CR4] 11월 10일 ~ 12월 18일

399,000원 ~

인출발

양곤+바오+시리암+달라섬 [AIP132131005OZ] 10월 5일(토) 1,099,000원 ~ 699,000원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유류세는 상기상품 가격에 별도지불되며 항공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바랍니다. ■부족한 시정에 의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선택경비 선택관광경비, 안내원봉사료 등은 고객님의 선택에 의해 현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출발일/출발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www.hanat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중구로 광명동 1번지 (하나투어)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 제26004-1993-6(중구구청) ■관광통신신고 Tel 1577-1233 ■22억1천만원 보증보험 가입 ■숙소:2급호텔이상 ■교통편:항공/버스/페리 ■항공사별로 유통할증료 인상금액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랍니다